

## Chapter 1. 호세아 5.

### ❖ 본문: 호세아 6 장 1 절 -11 절

####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볼 호세아서 6 장은 4 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대언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한 내용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1.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 (1-3 절)

1)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1 절)

#### ➤ 참고로 1-3 절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해석.

- ①. 선지자 호세아 ->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한 것으로 보는 해석.
- ②. 하나님 -> 선지자 호세아 <- 심판이 임할 때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처럼 서로 권면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으로 보는 해석.

-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권면!
  - ‘찢는다’의 히/원 = '타라프' 라는 말로, ‘굽주린 사자가 먹이를 찢어 먹는 것’을 의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매우 가혹하게 나타날 것임을 암시!
  - 5 장 14 절에서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듯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것이란 사실을 말씀하셨음!
-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가혹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간절히 호소한 것!

2)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2 절)

- 2 절 주목 => ‘여호와께서 \_\_\_\_\_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_\_\_\_\_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
  - ①. 우선 1 차적 의미는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이틀’과 ‘삼일’ 만큼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씀!
  - ②. 그런데 유대교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해석함!
    - a) '이틀'은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기'를 의미 => '삼일'은 '로마의 속박'을 의미
    - b) '이틀'은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 => '삼일'은 '메시아에 의해 세워지는 새 성전 시대'를 의미

③. 그러나 교부들과 현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영적 회복은 3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해석!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예표)한 구절이라 해석!

- 아무튼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분명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음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까지 얻게 될 것이란 사실!
-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부인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3)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3 절)

-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힘써’에 해당하는 히/원 = '라다프'란 말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적하거나, 뒤따르는 것'을 의미!  
-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열심으로 쫓고 뒤따르면서 나아가자는 것!!
-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음!

①. ‘새벽 빛 같이’ =>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킨 말!

- 곧 아침이 되면 항상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을 의미!

②. ‘비와 같이’ => 여기서의 ‘비’는 히/원 ‘게셈’이란 말로, 10 월부터 2 월까지 가나안 땅에 ‘흡족하게 내리는 비’를 가리킨 말!

- 곧 봄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옥도가 되게 내리는 흡족한 비처럼,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의미!

③.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 여기서 표현된 ‘땅’은 ‘마른 땅’을 가리키고, '비'는 히/원 ‘말코쉬’란 말로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을 가리킨 말!

- 따라서 이 비는 곡식이 열매 맺고 추수하게 위해 가장 중요한 비!
- 곧 하나님은 회개한 이들에게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용서의 비를 흡족히 내리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비도 흡족하게 내려 주시는 분이란 사실!!

## 2.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4-11 절)

1)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불신실함을 마음 아파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4-6 절)

- 우선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물으셨음! (4 절)  
- 이것은 결코 자포자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만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

-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마음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하찮은 것이었다고 지적!! (5 절)
  - ‘인애’는 ‘헤세드’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나아가 이웃을 향한 온유와 긍휼, 자비의 마음을 의미.
  -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인애(헤세드)’가 없다고 지적하셨음! (4:1).
  
-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빛처럼 빠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심! (6 a 절)
  - 참고로 6 절에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는 표현의 ‘치고’에 해당하는 히/원어는 ‘하차브’라는 말로,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연장으로 조각한다는 뜻’.
  - 전통적인 학자들은(Jerome, Luther, Given, etc)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조각하셨다고 해석.
  - 그러나 현대 학자들은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선지자들이 대언한 말씀들을 통해서 빛처럼 빠르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란 사실을 선포하신 말씀으로 해석.
  
-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심! (6 b 절)
  -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로 인한 이웃사랑의 삶이 없이 드러지는 모든 제사는 다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란 사실을 깨달아야 함!
  -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경건생활과 종교의식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삶을 가르치셨음! (마 9:13, 12:7)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아담과 비교하시면서 저들의 불의를 책망하셨습니다. (7-10 절)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_\_\_\_\_을 어기고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책망! (7 절)
  -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
  -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함!
  - > 그럼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신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과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신했다고 지적! (8-9 절)
  - ①. ‘길르앗’=>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 +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성들’ 이라 묘사!
    - 참고로 ‘길르앗’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요단 동편 땅을 의미.
    - 특별히 호세아 5 장 1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는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고 책망’하셨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미스바가 바로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라뭇에 속한 지역. (5 장 1 절 내용 참고)
    - 뿐만 아니라 미스바가 속한 ‘길르앗 라뭇’ 성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던 도피성이었음!
  - ②. ‘세겜’ =>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행함+ 사적인 악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

- ‘세겜’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레위 지파의 성으로 이곳도 도피성이었음!
  - 특별히 세겜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엘로 향하는 순례길에 위치함!
  - 따라서 당시 남쪽 벳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려가던 많은 순례자들이 세겜에서 안식을 취하였는데, 세겜의 제사장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자들과 공모하여 순례자들을 상대로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도피성!! 곧 저들은 율법을 악용한 것!!)
  - 따라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론이고, 약속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고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 (10 절)
    -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책망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
- 3)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던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유다를 향한 심판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경고해 주셨습니다. (11 절)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 나눔